

---

# 日本 稻吉 角田유적 출토 繪畵土器에 대하여

－ 한반도 太陽族의 일본열도로의 이주 －

이 건 무\*

---

\* 前국립중앙박물관장

\* 이 글은 2018년 『新・韓日交渉의 考古學』－弥生時代－ 第1回 共同研究에서 「韓日交渉 考古學 研究方向의 一摸索」이라는 主題로 發表하였던 內容 중 一部를 修正, 加筆한 것이다.

접수일: 2020.8.30. 심사완료일: 2020.11.13. 게재확정일: 2020.11.13.

## 국문요약

日本 鳥取縣 弥生時代 중기 유적인 稻吉 角田유적에서는 몸체 상부에 複數의 모티프를 지닌 대형의 繪畫土器가 출토되었다. 일반적으로 야요이시대 토기에 그려진 회화의 수는 많지 않으며, 하나의 토기에 일련의 그림을 배치하고 조합한 예 또한 드물다. 이에 지금까지의 연구자들은 토기에 그려진 회화의 의미와 토기의 기능을 중심으로 연구를 지속해왔다.

필자는 대형 회화토기가 출토된 이나요시 유적 근처에 송국리형 주거지가 포함된 대형의 중심 취락 유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 일대의 地名이 한국과의 관련성을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이나요시 유적에서 출토된 회화토기에 그려진 그림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 그림이 당시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이주한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이주 및 정착의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한국식 동검문화 시기에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일본 열도로 이주하였으며, 야요이인들과 함께 도작농경을 영위하였고 송국리형 주거지를 기본으로 야요이시대 후기까지 국읍을 형성하였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이주의 원인으로 철기문화의 확산에 따른 청동기문화인들의 이동, 권력의 이양, 주변으로의 영토 확장 등을 제시하였다.

### ■ 주제어 ■

야요이시대, 이나요시, 회화토기, 회화, 토기

## I.

日本 鳥取縣의 弥生時代 中期遺跡인 稻吉 角田遺跡에서 出土된 大形土器는 몸체 上部에 複數의 모티프를 지닌 繪畫土器로 잘 알려져 있다<sup>1)</sup>. 筆者는 글을 통해 오래전부터 이 遺蹟과 出土 土器에 대한 內容을 接한 바 있었으나, 遺蹟과 遺物을 實見한 것은 2012년이 처음이었다. 鳥根, 鳥取縣 一帶를 踏査하던 중 기회가 닿아 유적 現場을 찾아볼 수 있었고 繪畫土器도 博物館에서 직접 볼 수가 있었다. 이 토기에 대해서는 많은 研究者가 繪畫의 意味와 繪畫土器의 機能을 中心으로 다루어 왔다. 실제로 弥生土器에 직접 그려진 繪畫는 그 숫자가 그다지 많지 않고 또 하나의 토기에 一連의 그림을 配列하고 組合해서 畫題를 표현한 예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림이 傳達하고자 하는 內容을 把握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이 토기가 出土된 遺蹟 隣近 丘陵一帶에는 松菊里型住居가 包含된 大形の 中心聚落遺蹟이 存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일대의 地名에서 韓國과 關聯된 內容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림의 모티프가 나타내는 內容이 韓半島에서 移住한 사람들의 定着過程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解釋될 수 있어 이 繪畫土器의 그림 內容에 대한 筆者의 愚見을 간략히 披瀝해 보고자 한다.

## II.

舊石器時代 이래 繪畫가 文字를 대신해 觀念世界를 表現하고자 한 것은 世界 各地의 出土 例에서 잘 알 수 있다. 稻吉遺蹟 繪畫土器에 展開된 그림은 무엇을 表現하고자 한 것일까? 橫으로 配置된 一連의 그림이 하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먼저 最初로 자료를 소개한 글을 통해 유적의 위치와 出土 情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稻吉유적은 日本 鳥取縣 西柏郡 淀江町 稻吉의 小字角田에 위치한다. 現 米子市 淀江町 稻吉地區로 논 아래에 있는 弥生시대 中期유적이다. 農地整理(條里制)를 위한 事前 確認調査 시 논바닥의 105cm 아래 弥生文化 生活面에서 繪畫土器의 破片들이 出土되었으며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孝靈山에서 뻗어 내린 북쪽의 얇은 丘陵에는 유명한 弥生時代 後期유적인 妻木晩田유적이 있고 그 앞으로는 우리의 東海(일본의 일본해)가 펼쳐져 있다.

最初の 資料紹介에 의하면 이 토기는 弥生時代 中期 소위 晩田式土器 盛行期에 속하는

---

1) 佐佐木 謙, 1981, 「鳥取縣淀江町出土弥生式土器の原始繪畫」, 『考古學雜誌』, 日本考古學會

것으로 壺, 甕, 高杯 등의 파편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밖에 黑曜石片, 石鍬片 등도 조금 나왔다고 한다. 구경 47.4cm, 두께 1.5cm의 단단하게 구워진 大形壺로 12편의 파편이 3m 정도에 散布되어 있었다고 한다. 자료의 內容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櫛目斜格子文을 가진 구연의 잘룩한 부분의 아래에서 頸部 일대에 폭 21cm의 繪畫帶가 있다. 그 띠가 경부를 한 바퀴 돌고 있으며, 그림의 약 80cm는 연속되어 있으나 그 밖의 殘片은 어떻게 連續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림은 대칼과 같은 도구로 새긴 陰刻의 그림(線刻畫)이다. 右側에서 左側으로 가며 同心圓文, 새의 깃털과 같은 것을 머리에 장식하고 배를 젓는 人物들, 높은 사다리가 있는 望樓 또는 神殿과 같은 建物, 高床家屋, 나무와 같은 것에 매달린 길쭉한 物體, 그리고 사슴과 같은 動物의 모습이 차례로 그려져 있다. 배의 首尾는 잘 알 수 없지만 곤도라형으로 휘어 올라간 것은 확실하고, 船首와 船尾에 있는 사람은 각각 앞을 향하고 있고, 노를 가지고 배를 힘차게 젓고 있는 모습이다. 이 사람들의 間隔을 보면 缺失部에도 한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고 보면 3人乘을 표현한 것이다<sup>2)</sup>. 船首의 人物 머리에는 바람에 휘어진 船印(船舶의 標識)을 표현하였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려져 있고, 船尾의 것에도 그것이 있다<sup>3)</sup>. 배의 左側에는 사다리가 달린 高床倉庫가 그려져 있는데, 다리가 긴 사다리 18段(缺失部の 間隔을 감안하면 21段?)의 階段을 가지고 있다. 정면에 4개의 掘立柱를 표현한 3칸2면(정면3칸 측면2칸?) 또는 3칸3면(정면3칸 측면3칸?)의 건물을 그렸는데, 唐古유적의 예와 같이 맞배지붕(切妻屋根)이 아니고 우진각지붕(寄棟)이다. 山陰지역 古代倉庫의 屋根裏倉庫를 그린 것이라고 본다. 좌측에 접해서 맞배집이 그려져 있다. 香川 銅鐸 등과 같은 맞배지붕이다. 이것은 窓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掘立柱의 平地住居이다. 弥生中期 住宅에 平地住宅이 있고, 맞배지붕이 있는 것은 그림만이 아니고, 竪穴이 아닌 주거지가 淀江지구에서는 弥生後期 유적에서 얼마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平地住居가 中期로 올라갈 可能性은 크다. 이것은 住宅과 倉庫를 組合한 家屋敷地를 그린 것이라고 보고 싶다. 집의 左側에는 나무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몸통의 左右로는 横으로 가지가 번갈아 곧게 뻗어 있다. 제일 아래쪽의 가지에 左右 對稱으로 감나무(柿)의 열매와 같은 것이 달려 있다. 果樹일지 아닐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아마 植物일 것이다. 또한 이 일련의 그림의 반대(뒤)쪽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사슴(鹿)이라고 推定되는 動物이 그려져 있다. 뿔의 일부와 네발의 先端에 奇蹄類의 갈라진 발굽 같은 것 의미?)가 붙어 있다. 또한 6중의 同心圓을 그린 일부의 破片도 있으나 어디에 接着하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다. 太陽일까? 이 土器는 壺棺으로

2) 그러나 간격으로 보면 4인이 그려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禰宜田佳男, 2006, 「繪畫による傳達」, 『文字と古代日本』五, 吉川弘文館

3) 이 자료소개에서는 船印이라고 보았지만 인물의 머리장식으로 보는 것이 옳다.

높이도 60cm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口緣의 文樣은 晩田式의 代表的인 施文으로서, 부근에서는 合口壺棺도 나오는데 時期는 약간 내려가고 그림은 없다. 이 일련의 그림 속에서 邸宅과 배는 많은 것을 聯想하게 한다. 배는 오늘날에도 山陰 古代神 祝祭의 儀式인 美保神社의 〈諸手船〉의 원형(祖原)일 것으로 생각한다. 諸手船은 古代 東海(日本海)를 航海한 航法의 자취이다. 神祀의 特色은 지금도 통나무배(丸木船)를 노를 가지고 앞으로 저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美保神社는 淀江의 對岸에 있고 가깝다. 淀江이 弥生時代 良港이었다는 것은 별도의 發掘로도 證明되었다.”

이러한 그림은 豊作을 祈願하고 收穫에 感謝하는 ‘祭儀’에 관한 이야기를 뜻하는 것, 또는 湖沼가 넓었던 淀江平野의 마을 情景를 描寫한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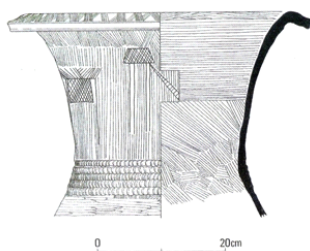


그림 1. 稻吉 角田 繪畫土器

현재 복원되어 博物館에 展示된 土器<그림 1>의 內容을 기준으로 하여, 맨 右側의 그림부터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① 맨 右側에는 약 1/4 정도만 남았지만 同心圓文의 内部에 十字文이 있는 그림이 配置되어 있다<그림 2>. 이 同心圓文 그림이 太陽을 象徵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해 研究者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異見이 없어 보인다. 원래 同心圓은 世界 各地에서도 태양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고, 또 圓内部에 十字文이 배치된 소위 sun-cross 문양도 太陽의 심볼로 表現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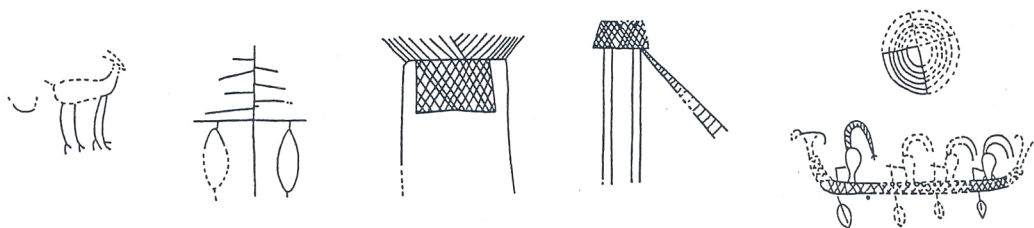


그림 2. <稻吉遺跡 繪畫土器의 그림>(禰宜田佳男 作圖)

4) 李健茂, 1984, 「傳 益山出土 圓形有文青銅器」,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通川文化社

이러한 同心圓文이나 十字文, 十字日光文 등 太陽文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자. 바위에 그려진 동심원문은 국내의 高靈 良田洞(現 場基里)유적과 蔚州 川前里 유적 및 大邱, 達城, 咸安, 高靈, 密陽 등지의 靑銅器時代 支石墓와 立石 등에서 보이고 있고<sup>5)</sup>, 韓國 周邊地域에서는 아무르강 하류와 우수리지역의 岩刻畫 그리고 中國의 陰山岩畫 遺蹟 등지에서 보인다. 물론 凡유럽 스타일로 영국을 비롯해서 스칸디나비아반도와 이베리아반도에 이르기까지 거의 유럽 全域에서 보이고 있으며<sup>6)</sup>, 西曆 紀元後의 北美 원주민들의 유적에서도 보이고 있다. 이들의 形象 自體는 各地의 것이 거의 同一하지만, 그것이 지닌 意味는 文化와 脈絡에 따라 多樣하다. 高靈 良田洞(장기리)유적 일대는 “알터마을”로 불리며 天神과 交感해 알을 낳았다는 說話가 있는 곳이다. 卵生說話가 太陽과 關聯이 깊다는 점에서 볼 때, 이곳 岩刻畫의 同心圓文도 太陽과 關聯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밖에 靑銅器時代 立石이나 支石墓에서 發見되는 同心圓들도 地域性과 文樣構成의 多樣性으로 보아 모두가 太陽을 意味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太陽神의 崇拜나 太陽崇拜의 結果물로 보는 見解가 많다. 아무르강 下流와 우수리지역의 岩刻畫에서 보이는 同心圓文도 太陽과 關聯이 있다고 보는 見解가 있으며, 中國 陰山의 岩畫<sup>7)</sup>의 내용에서도 가운데 성혈이 있고 이를 中心으로 하여 圓이 돌아가는 것을 太陽으로 보고, 둘레에 빛이 표현된 同心圓은 太陽을 象徵하는 符號로 보고 있다. 同心圓을 구름으로 보기도 한다. 世界의 各 地域에서 岩畫의 形態로 表現된 同心圓(concentric rings)은 太陽 또는 太陽崇拜(sun worship)와 關聯된 內容이라고 보고 있거나, 靈魂 또는 사면이 다른 世界로 移動하는 特別한 場所의 표시로 여겨진다고 보고 있으나 東아시아 地域의 그것과 直接 連結시키기는 어렵다고 하겠다(그림 3, 4).



그림 3. 高靈 良田洞 岩刻畫 同心圓



그림 4. Concentric circle sun signs, Three Rivers NM

5) Gwon-gu Kim, 2015, 「Rethinking the Symbolic Meanings of Some Prehistoric Designs of the Cheonjeon-ri Petroglyphs and Their Related Rituals」, 『PETROGLYPHS OF CHEONJEON-RI IN ULSAN, KOREA, IN THE CONTEXT OF WORLD ROCK ART』, BANGUDAE PETROGLYPHS INSTITUTE, UNIVERSITY OF ULSAN, Hollym International Corp. USA

6) Michael Parker Pearson, 1993, 『Bronze Age Britain』, B. T. Batsford Ltd/ English Heritage London

7) 盖山林, 1986, 『陰山岩畫』, 文物出版社

韓國 靑銅器時代에서 鐵器時代에 걸친 時期의 精文鏡 外區 文樣에서 보이는 小形の 八圓文과 四圓文도 同心圓文으로 표현된 것이 많은데, 近者에 全北地域에서 출토된 精文鏡의 四圓文은 아예 太陽文으로 表現되어 있어 同心圓文이 太陽을 象徵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sup>8)</sup>. 精文鏡 자체가 太陽을 象徵하는 儀器이기도 하지만 이를 더욱 強調하는 意味에서 使用된 文樣으로 볼 수 있다. 八圓文의 八이라는 숫자는 古代 日本에서 야(や / Ya)로 부르며 幸運의 數인 동시에 성(聖)스러운 숫자 또는 많다는 뜻을 含有하고 있다<sup>9)</sup>. 古代의 이러한 概念은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靑銅儀器 중의 八珠鈴과 精文鏡의 八圓文, 永川 漁隱洞遺蹟 出土 銅泡에서 보이는 여덟 개의 日光文 등을 보면 수많은 빛을 여덟 숫자의 내용으로 표현하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 土器의 同心圓文 그림이 太陽을 나타내려고 한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그림 5~7>.



그림 5. 和順 大谷里鏡 八圓文 同心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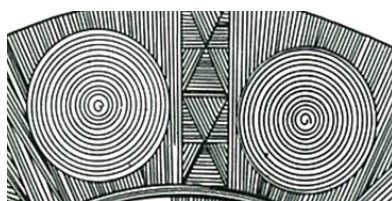


그림 6. 唐津 素素里鏡 八圓文 同心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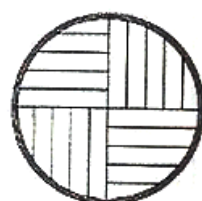


그림 7. 日本 吉武高木鏡 八圓文 內 文樣

원 내부의 十字文은 흔히 sun cross로 알려진 것으로 거의 世界 共通으로 太陽을 象徵하는 記號이다. 우리나라에서 發見된 여러 靑銅器의 十字日光文 이외에도, 中國 河南省 安陽市 候家莊 1005號墓 出土 殷代 太陽文 銅鏡<그림 9>을 비롯해 시베리아 샤먼의 북 文樣<sup>10)</sup> <그림 8>에 이르기까지 太陽 또는 宇宙와 密接한 內容을 보이는 文樣이다. 中國에서는 殷代 太陽文 銅鏡 이외에도 陰山 哈你沙拉溝遺蹟의 岩畫에서 太陽神 崇拜符號로 나타나고 있고<그림 10>, 河姆渡遺蹟 紡錘車 文樣에서 燕下都 遺蹟 出土<sup>11)</sup> 토제 방울(甗)의 문양<그림 11>을 비롯해 前漢代 土器의 뚜껑 문양 등에 이르기까지 각 時期에 걸쳐 여러 곳에서 이러한 모티프가 보이고 있다. 日本 吉武高木遺蹟 3호 木棺墓 出土 精文鏡의 中間區 八圓文에 채워진 문양도 殷代 太陽文 銅鏡에서 보이는 것과 同一한 形態의 十字文이다<sup>12)</sup>.

8) 全北 完州 新豐 나-1호 土城墓 出土 精文鏡의 外區 四圓文 湖南文化財研究院, 2014, 『完州 新豐遺蹟』 I・II

9) 例를 들어 やえはたえ(八重, 二十重, 수많은), やおよろずのかみ(八百萬의 神 즉 모든 神, 못 신) 등

10) 시베리아 예네키(마네그르족) 태양 정령형상.

국립민속박물관, 2011,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 샤먼』

11) 河北省文物研究所, 1996, 『燕下都』 文物出版社



그림 8. 太陽의 精靈  
(에벤키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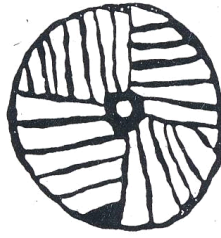


그림 9. 陰山岩畵  
(哈你沙拉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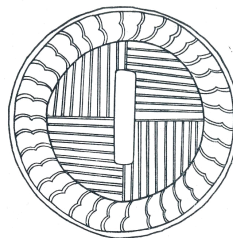


그림 10. 候家莊 殷代  
銅鏡 太陽文



그림 11. 燕下都(戰國)  
陶製銅鏡 太陽文

이러한 十字文 또는 中央의 4區劃 모티프는 東西南北이나 4季節을 뜻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基本的으로는 宇宙의 本質을 象徵하고 있는 것이다<sup>13)</sup>. 이러한 太陽 또는 宇宙에 대한 象徵性은 文化의 東漸과 함께 中國과 우리나라에까지 미쳤다고 생각된다. 太陽이 둥글고 回轉한다는 意識과 함께 崇拜의 對象으로 作品을 構成하는 基本單位가 되는 무늬로 表現하였다고 믿어진다. 日本神話에서 보듯이 거울이 太陽과 관련이 깊고 또 精文鏡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機能을 가진 巫具일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精文鏡 文樣 自體가 太陽을 象徵하고 보아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또한 神話 상의 내용이지만 『日本書紀』 卷第7 景行天皇 40 年の ‘時大鏡懸於王船，從海路廻於葦浦’이라는 記錄이 參考가 된다면, 이러한 同心圓文과 十字文이 精文鏡에 使用되었던 文樣이라는 점에서 배에 銅鏡을 매달았던 것을 表現하였을 可能性도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稻吉角田 土器의 十字同心圓文은 太陽을 象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또한 正문경 그 自體를 象徵한 것일 수도 있다.

② 다음의 그림은 배를 타고 노를 젓는 人物들이 그려진 것이다(그림 14). 破損된 部分이 있어 現在는 두 사람의 모습만 보이나 4人 정도가 배를 젓는 場面이다. 여기서 배를 젓는 人物을 보면 特徵인 것이 머리에 깃털 같은 것을 附着하고 있는 점이다. 맨 앞 人物의 머리장식은 깃털 같은 것을 묶은 것처럼 하고 있으나, 뒤의 인물 머리장식은 두 갈래로 별

12) 福岡市教育委員會, 1986, 『古武高木』, 福岡市埋藏文化財調査報告書 143

13) 古代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中東地域 一帶에 발견되는 彩文土器는 西紀前 6,000年기부터 製作되었다. 하수나(Hassuna)文化內容에서 보이는 彩文土器들을 보면 廣範圍한 交易網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어진다. Sialk, Ubaid, Sesklo, Eridu, Samarra, Halaf 문화의 新石器時代 유적에서 출토되는 彩文土器들의 文樣에서 이러한 回轉形 十字文 모티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十字文은 宇宙의 中心 즉 만다라(曼荼羅/宇宙 空間에 多樣하게 展開된 信仰 樣相)를 表現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十자와 卍자를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견해와 함께 Hassuna 토기에 서 보이는 卍자 기호가 춘양(春陽/Vernal Sun)을 나타내고, 生命력을 象徵한다는 主張도 있다.



어져 있다. 이 그림의 내용에 대해 近藤喬一은 稻吉 角田遺蹟의 배와 羽人의 모습이 中國 雲南省 石寨山遺蹟 제14호墓 출토 銅鼓에 있는 羽人圖像과 아주 닮았다는 점에서 華中・華南形文化要素가 韓半島를 경유해 弥生時代 中期의 日本에 流入되었다고 論했다<sup>14)</sup>. 또한 石寨山遺蹟의 貯貝器의 圖上이나 立體像에서 表現된 高床建物에 收穫物を 나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머리에 깃(羽)을 붙인 샤먼이 춤을 추는 農耕儀禮의 場面을 表現한 것으로 보고, 마을에 있어서 共同作業을 證明하는 것으로 마을共同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 見解도 있다<sup>15)</sup>. 그러나 아직은 우리나라나 日本에서 銅鼓라든가, 貯貝器와 같은 靑銅遺物이 보이지 않거니와, 그와 관련된 遺物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머리의 鳥羽裝飾 形態에서 많은 差異를 보인다(그림 12, 13). 農耕文化 內容에서도 中國 華南地域과 連結될만한 要素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日本列島 農耕文化 內容에 韓半島 靑銅器時代 農耕文化 要素가 강하게 보이고 있고, 韓半島를 經由하였다고 본다면 이를 中國 南方과 直接 連結하기는 다소 무리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角田遺蹟 土器에 表現된 人物 모습은 韓國 大田 出土로 傳하는 農耕文靑銅器에 表現된 머리 깃털 장식(羽根飾)의 人物 모습과 아주 類似한 느낌을 받는다(그림 15)<sup>16)</sup>. 두 그림은 깃털이 곧게 表現된 것과 逆U자형으로 휘어져 있는 점에서 差異가 있으나, 머리에 두 가닥으로 난 裝飾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關聯性이 깊어 보인다. 또한 後代의 것이지만 高句



그림 12 中國 雲南 銅鼓에 그려진 배와 鳥羽裝飾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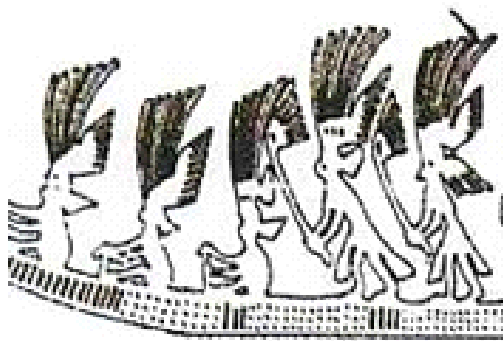


그림 13 中國 雲南 銅鼓의 鳥羽裝飾人 細部

14) 近藤喬一, 1986, 「東アジアと靑銅祭器-農耕儀禮の祭器としての武器と鐸-」, 『銅劍・銅鐸・銅鉞と出雲王國の時代』, 日本放送出版協會 / 豆谷 和之, 2012, 「大型建物の性格についての虚實」, 『月刊 考古學ジャーナル』 8, No.631, ニューサイエンス社 에서 再引用

15) 豆谷 和之, 2012, 「大型建物の性格についての虚實」, 『月刊 考古學ジャーナル』 8, No.631, ニューサイエンス社

16) 韓炳三, 1971, 「先史時代 農耕文靑銅器에 대하여」, 『考古美術』 112, 韓國考古美術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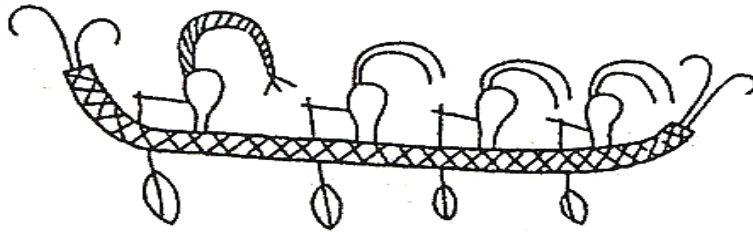


그림 14. 稻吉 角田 배와 船員 復原圖



그림 15. 農耕文靑銅器

麗 舞踊塚(그림 16, 17)과 雙楹塚 壁畫(그림 18)에서 보이는 高句麗人의 鳥羽冠을 보면 두 갈래로 갈라진 형태가 이와 類似하고, 〈北史〉高句麗傳에 나있는 “人皆頭著折風, 形如弁, 士人加插二鳥羽”의 記錄을 보면 이러한 머리 장식이 韓半島에서 共通으로 사용된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鳥羽冠은 弁形帽의 折風巾이나 蘇骨에 새의 깃을 꽂아 장식한 모자로 보통은 2개의 鳥羽를 꽂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鳥尾나 金屬製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sup>17)</sup>. 中國 唐 나라 章懷太子(李賢)墓의 壁畫의 人物圖 중의 新羅使臣에서도 보이며 皇龍寺址 出土 文樣塼의 人物圖, 그리고 慶州出土 土器 片에 表現된 騎馬人物의 그림(그림 19)과 興海 鶴川里 제28號墓 出土 土器에 表現된 人物畫(그림 20)에서도 보이고 있다<sup>18)</sup>. 머리를 두 갈래로 묶거나 鳥羽를 장식하는 風習은 古代 韓國의 傳統으로 예부터 행해져 왔을 가능성이 많다.



그림 16. 高句麗 舞踊塚



그림 17. 高句麗 舞踊塚



그림 18. 高句麗 雙楹塚

17) 舞踊塚 壁畫에는 鳥羽와 鳥尾 裝飾의 깃이 모두 보인다. 舞踊手의 모자에는 새 꼬리털을 묶은 것과 같은 장식이 붙어 있다.

18) 李健茂·金古植, 2002, 「皇龍寺址 出土 人物文塼」, 『考古學誌』 13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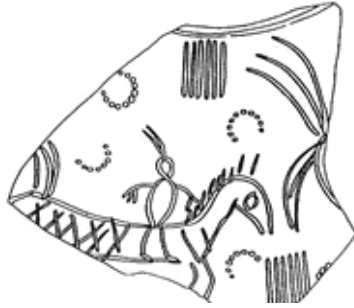


그림 19. 慶州出土 新羅土器片



그림 20. 興海 鶴川里 제 28號墓 土器片

배는 船首와 船尾가 두 갈래로 휘어져 올라가 있는 곤돌라形이다(그림 14). 後代의 舟形 土器에서 보이는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 노를 저어 航海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日本 弥生中期부터 古墳時代に 이르는 船舶資料에 船首와 船尾가 위로 들린 型式이 많은 것은 잘 알려져 있다. 日本 弥生中期의 福井縣 井向遺蹟 出土 1호銅鐸에 表現된 배(그림 22), 弥生後期の 靑谷上寺地遺蹟 出土 木板에 그려진 船團의 그림(그림 14)<sup>19)</sup>, 古墳時代의 奈良 東殿塚古墳 出土 圓筒하니와(埴輪)에 표현된 배 그림, 그리고 6世紀頃 宮崎縣 西都原古墳 出土 배의 模型(그림 27) 등을 보면 하나같이 船首와 船尾가 위로 들린 곤돌라형의 배이다<sup>20)</sup>. 韓國 先史時代 實物 船舶에 관한 資料를 보면 新石器時代의 慶南 昌寧 飛鳳里유적 出土의 獨木船이 있을 뿐인데 곤돌라형은 아니다. 釜山 東三洞유적 出土 土製品 역시 獨木船의 形態이나 이물과 고물이 들리지 않았다. 靑銅器時代의 자료로는 盤龜臺 岩刻畫(그림 21)에 표시된 漁撈內容에서 보이는 배들의 모습이 있을 뿐이다<sup>21)</sup>. 이 盤龜臺 岩刻畫에 표현된 捕鯨들의 모습은 船首와 船尾가 들린 곤돌라형이다. 歷史時代의 發掘資料로는 6世紀代의 新羅 金鈴塚과 陝川 玉田 99호분에서 出土된 象形土器에서 배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sup>22)</sup>. 이 역시 모두 곤돌라형이다. 西紀前 2-1세기경부터 韓半島와 日本列島 사이의 沿岸 貿易이 活潑하게 행하여져 왔음은 잘 알려져 있으나 아직 帆船에 관한 資料는 없기 때문에 帆船이 使用되었을 確率은 극히 적다. 日本에서도 古墳時代의 帆船에 대해서는 可能性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弥生時代의 帆船 資料로는 明確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sup>23)</sup>. 新羅 金鈴塚 出土 배의 模型을 보면 日本의 배와 그 形態가 同一한 곤돌라형의 배이다. 日本의

19) 横田洋三, 2007, 「弥生時代の舟」, 『海と弥生人』, 鳥取縣教育委員會

20) 阿南 亨, 2007, 「古墳時代の船と航海」, 『大王の棺を運ぶ實驗航海』 研究編, 石棺文化研究會

21) 盤龜臺 岩刻畫를 新石器時代의 것으로 보는 見解도 있지만 아직은 論據가 不足하다고 생각한다.

22) 金동숙, 2008, 「신라·가야의 象形容器와 분묘 제사」, 『상형토기의 세계』 丹豪文化研究 12, 용인대학교

23) 註 15)의 前掲書

弥生時代와 古墳時代 船舶관련 資料를 보면 이 時期의 韓國과 日本의 배가 모두 이러한 型式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일본에서는 獨木舟(丸木舟)를 대신해 兩舷(양쪽 뱃진)에 높은 舷側板을 세워 파도를 막게 한 「準構造船」이 弥生時代 中期에 出現한다고 한다. 이는 積載量의 增大와 배의 耐航性 向上을 위한 고안이며, 이 以後에 배의 本體가 板材를 組合(결합)해서 만들어진 「構造船」이 등장한다고 한다<sup>24)</sup>. 弥生時代末이라고 생각되는 久宝寺 유적에서는 船首 또는 船尾 쪽에 꿰뚫어 파낸 船體 부분과 豎板, 舷側板의 3점이 출토되어 準構造船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中國 後漢代 廣州 紅花岡墓 出土 明器의 배<그림 25>를 보면 左右 舷板을 가로지르는 桃(橫木)이 나있어 이러한 構造를 잘 이해할 수 있다. 韓國 靑銅器時代 이래 곤돌라형 배가 만들어졌고, 準構造船의 구조를 가진 배도 鐵器時代에는 충분히 製作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角田遺蹟의 배는 그림으로 본다면 人員數도 적고 小型의 배로 보이지만, 一連의 사실적 이야기를 連續해서 보여주는 파노라마식 그림들 중의 하나이므로 航海의 象徵性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角田遺蹟 繪畫土器 자료를 소개한 佐々木 謙씨는 이 배에 대해 오늘날에도 山陰 古代神 祝祭의 儀式인 美保神社의 <諸手船>의 原型 일 것으로 보고 있다. 神話와 관련된 諸手船은 『日本書紀』 神代 下 제9段에 나오는 이야기로, 大己貴神이 出雲國의 三穗(美保 즉 일본 발음으로는 미호로 읽음) 海邊에 놀러가 낚시를 즐기고 있던 아들 事代主神에게 소위 國土移讓과 관련된 承諾 與否를 듣고자 使者 稻背脛을 태워 보낸 배이다<sup>25)</sup>. 土器에 그려진 배가 小形으로 속도가 빠른 배처럼 보이고, 美保神社가 淀江의 對岸에 있으며 淀江이 弥生時代 良港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놓고 推定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神話에서 나오는 <廣矛>의 이야기로 보아 時代 背景이 角田유적의 時期보다 늦는 것으로 볼 수 있고, 畫題構成의 全體 內容으로 보아 國土移讓과 같은 神話 內容의 狀況과는 맞지 않는다. 배를 짓고 있는 장식머리의 인물들과 연결해 볼 때 이 배는 韓半島에서 해가 뜨는 동쪽 日本으로 移住하기 위해 航海하는 場面을 描寫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21. 盤龜臺 岩刻畫 배



그림 22. 福井縣 井向出土 銅鐸에 그려진 배

24) 上掲書

25) 田溶新譯, 1990, 『完譯 日本書紀』, 一志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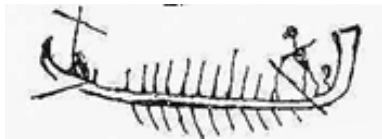


그림 23. 靑谷上寺地遺蹟 準構造船



그림 24. 想定 復元  
圖(海と弥生人에서)



그림 25. 中國 後漢代 船明器(漢代の文物  
圖(海と弥生人에서))



그림 26. 昌原 縣洞 第387號墓/ 5世紀



그림 27. 宮崎縣 西都原古墳群/ 6世紀

③ 세 번째 그림은 사다리가 놓인 매우 높은 高床建物の 그림이다(그림 28). 祭殿 또는 望樓의 모습이다. 지붕형태는 그림 상으로는 맞배지붕처럼 보이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이와 지붕형태가 유사한 土器繪畫으로는 奈良縣 唐古·鍵遺跡의 것(그림 29)과 奈良縣 清水風遺蹟 出土品(그림 30) 그리고 兵庫縣 養久山·前地遺蹟<sup>26)</sup>, 岡山 雄町遺蹟, 岡山 窪木遺蹟의 것이 있다. 唐古·鍵遺蹟의 繪畫土器에 表現된 집은 지붕에 둥글게 말린 고사리형 裝飾이 붙어 있는 重層의 樓閣式 建物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지붕장식이 있는 것이 여러 채이다. 사다리는 建物 内部에서 오르게 되어 있는 것과 建物 外部에서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 모두 보인다. 養久山·前地遺蹟의 것도 지붕에 고사리형 裝飾이 붙어 있는 것이며 사다리는 건물 밖에서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고사리형 裝飾이 格式이 있는 建物에 附着되는 것이라고 볼 때 사다리가 內側에 있느냐 外側에 있느냐는 格式과는 無關한 것으로 보인다. 清水風遺蹟의 것은 사다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除外하고는 角田遺蹟의 것과 가장 類似하다.

26) 龍野市教育委員會, 1995, 『龍野市文化財調査報告15: 養久山·前地遺蹟』, 龍野市教育委員會

雄町遺蹟, 窪木遺蹟의 것은 家屋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의 形態와 數에서 差異를 보이며 사다리가 表現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角田유적의 그림이 이들 그림과 가장 差異가 나는 점은 高床家屋의 기둥이 지붕 높이의 5배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는 사다리의 길이에 서도 잘 알 수 있는데, 他 遺蹟 土器繪畫 사다리 그림의 발판(階段)의 수가 10여개인데 비해 21개(缺失部 復原 包含 숫자)나 되어 越等히 많은 점이다. 이렇게 기둥이 높은 建物은 이 角田遺蹟 토기의 그림이 唯一하다. 이렇게 特殊한 建物들은 聚落의 主要施設 例를 들어 首長과 관련되었거나 祭義와 關聯된 건물로서 表現한 것은 틀림이 없다고 하겠는데, 먼저 높은 望樓를 表現한 것인지 아니면 祭殿과 같은 祭祀施設을 表現한 것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望樓일 가능성을 살펴보자. 望樓라고 하면 周圍를 살펴보기 위한 目的으로 높게 세우는 建物이다. 監視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그 建立 目的이 軍事的이거나 防禦的인 建物이다. 이 土器繪畫의 全體構成 內容에는 軍事的이거나 戰鬪的인 內容이 담긴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望樓로 보기에는 옆의 構圖들과는 걸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祭殿이나 神殿이 아닐까? 그동안 이렇게 지나치게 높은 高床建築物이나 지붕에 螺旋狀의 裝飾이 가해진 特殊한 建物은 祭義와 關聯된 것이라는 論議가 많이 있었다. 특히 그림이 그려진 土器 자체가 祭祀的인 성격을 가졌다면 土器에 그려진 그림 역시 그것을 反映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sup>27)</sup>. 古代에 高層神殿이 存在했다는 根據의 하나로 『日本書紀』 神代史에 나오는 大國主神 大己貴命을 祭祀지내고 있는 島根縣 出雲大社의 本殿을 例로 드는 見解도 參考가 될는지 모르겠다. 平安時代 中頃(970年)의 貴族子弟 教科書인 『口遊』에 당시 가장 큰 건물들(雲太(「出雲大社 本殿」)・和二(「東大寺 大佛殿」)・京三(「平安京 大極殿」)) 중 으뜸으로 하고 있고, 傳乘에 의하면 16丈(48m)의 높이였다고 한다<sup>28)</sup>. 이렇게 높이가 있는 威壓的인 建物들이 信仰的인 면이나 祭祀的인 면에서 세워졌다면 角田 繪畫土器의 高床建物 그림 역시 神殿 또는 祭殿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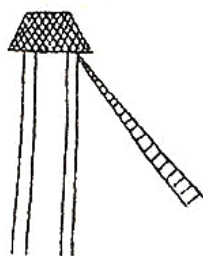


그림 28. 稻吉 角田



그림 29. 奈良 唐古·鍵



그림 30. 奈良 清水風

27) 設楽博己, 2009, 「独立棟持柱建物と祖霊祭祀」,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149集

28) 島根縣立古代出雲歴史博物館, 2010, 『島根縣立古代出雲歴史博物館 展示ガイド』

④ 네 번째 그림 역시 高床建物を 表現한 것이다<그림 31>. 지붕은 세 번째 그림과는 달리 역사다리꼴(逆梯形)의 맞배지붕 形態이다. 양편에 기둥이 높게 서있고 建物の 바닥이 地上 위로 높게 들려 지붕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이와 지붕형태가 유사한 土器繪畫로는 奈良縣 唐古·鍵遺跡의 것<그림 32>과 岡山 南方<그림 33>, 奈良縣 清水風遺蹟 出土品<그림 34>, 大阪 大塚, 大阪 瓜生堂 遺蹟 出土品 등이 있으며, 銅鐸繪畫로는 傳 香川<그림 35>, 福井 2號 등이 있다. 이러한 역사다리꼴 맞배지붕의 高床建物は 그림 形態로 보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역사다리꼴 지붕에 직접 기둥이 붙어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역사다리꼴 지붕의 아래에 다시 直四角形의 것이 있고 거기에 기둥이 붙어있는 것이다. 高床倉庫의 경우 지붕 아래쪽에 床面을 놓고 그 자체를 空間施設로 사용하는 斷面 三角形의 “지붕倉庫型”(屋根倉風)과 지붕 아래쪽 네 周圍에 板壁을 設置하여 空間施設로 使用하는 斷面 五角形의 “板壁倉庫型”(板倉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sup>29)</sup>. 倉庫 이외에도 大阪 池上曾根遺蹟 高床建物이나 棟持柱建物の 例와 같이 대형의 神殿이나 集會所와 같은 建物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그림 36>. 角田遺蹟의 경우는 이들과 약간 差異를 보이고 있어 特異하다. 家屋의 形態로 보면 역사다리꼴 지붕 아래에 直四角形이 있는 形態이지만, 床面을 받치는 기둥들은 보이지 않고 지붕의 양쪽으로 棟持柱와 같은 기둥 두 개만 그려져 있을 뿐이다. 棟持柱가 그려진 岡山 南方遺蹟 출토품이나 傳 香川出土 銅鐸의 高床建物에는 床面에 기둥이 그려져 있고, 지붕 頂部의 마룻대(大棟)와 연결된 棟持柱의 表現도 뚜렷하다. 이들과는 약간 다른 型式의 建物일지도 모르겠다. 이 건물이 祭殿을 表現한 것이든 高床倉庫를 表現한 것이든 간에 매우 重要な 施設을 나타내려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祭殿은 聚落의 團合과 統率 같은 指揮體系를 維持함과 동시에 神에게 安寧과 豊饒를 希求하는 場所로 重要な 機能을 한 것이며, 高床倉庫는 農耕社會의 必須的인 建物로서 穀食을 보호하고 饑饉에 대비하기 위한 貯藏施設로서 역시 重要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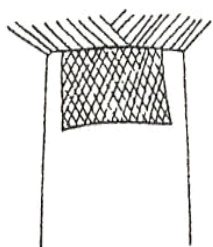


그림 31. 稻吉 角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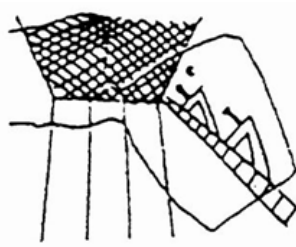


그림 32. 奈良 唐古·鍵



그림 33. 岡山 南方

29) 鳥取縣立むきばんだ史跡公園, 2012, 「甦る弥生の國邑」, 『妻木晩田遺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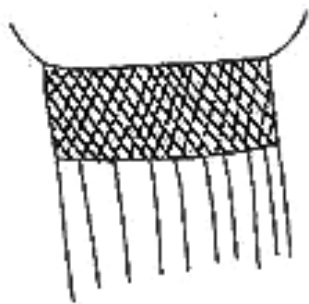


그림 34. 奈良 清水風



그림 35. 傳 香川 銅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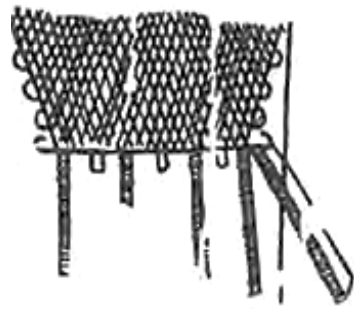


그림 36. 大阪 池上曾根

角田遺蹟 土器繪畫의 세 번째 그림과 네 번째 그림과 같이 複数の 建物이 나란히 그려져 있는 土器繪畫로는 兵庫縣 養久山・前地遺跡의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 設樂博己는 『魏書』東夷傳 高句麗條의 「...於所居之左右立大屋祭鬼神(居所의 左右에 大屋을 세워 鬼神에게 祭를 지낸다.) 又祠靈星社稷(또 靈星과 社稷에 祭祀를 지낸다.)」 記錄에서의 ‘大屋은 宗廟를 가리킨다.’, ‘大屋을 居所의 左右에 세워 靈星과 社稷에 祭祀를 지낸다.’ 라는 등의 諸說을 紹介하며 「宗廟」와 「社稷」과 같은 概念이 이러한 高床建物에 들어있음을 示唆하고 있다<sup>30)</sup>. 즉 祖靈에 新穀을 바치는 것이 收穫祭의 一般的 方式으로, 穀靈祭祀와 祖靈祭祀가 展開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의 全體構成으로 보아 이러한 性格의 건물일 可能性이 높다고 하겠다.

⑤ 다섯 번째 그림은 아마 나무에 매어달린 둥글고 길쭉한 橢圓形 물체의 모습이다(그림 37). 『日本書紀』神代 上 <제 7단 寶鏡開始>에는 ‘掘天香山之五百箇眞坡樹，而上枝懸八坂瓊之五百箇於統，中枝懸八咫鏡，天香山에서 오백 개 眞坡樹를 파다가 윗가지에는 오백 개의 옥으로 된 於統(목걸이 같이 목, 머리 등을 장식하는 일련의 것)을 달고 가운데 가지에는 八咫鏡을 걸고...’라는 기록이 있어 거울을 나무에 매단 모습일 可能性도 없지는 않으나, 橢圓形 물체가 下枝에 걸려 있고 나무에 비해서 지나치게 크게 그려져 있어 거울(精文鏡)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긴 橢圓形의 모습이라 銅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橢圓形의 아래쪽으로 나있는 짧은 선을 銅鐸의 舌로 본다면 銅鐸의 側面 모습일 수 있다. 방울(銅鐸)의 모습이라고 믿어진다<sup>31)</sup>. 日本에서 銅鐸에 舌를 가지고 出土되는 例는

30) ‘弥生時代の 掘立柱建物이 集中하는 區域에는 獨立棟持柱建物 외에 다른 종류의 掘立柱建物이 隨伴되는 例가 많다. 祖先靈을 祭祀 지내는 建物 以外에도 天・地靈을 祭祀 지내는 建物이 存在하고 있었을는지 모른다.’ 註 25) 前掲書

31) 春成秀爾, 1987, 「銅鐸」의 まつり,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12集



매우 드물다. 鳥取縣의 東伯郡湯梨浜町 小浜池ノ谷에서 銅鐸과 2개의 銅舌이 共伴된 바가 있고 愛知縣 八王子遺蹟과 和歌山縣 太田黒田 銅鐸에서 각각 石舌 1개씩 그리고 兵庫縣에서 7-8개가 발견되었지만 대부분의 銅鐸에서는 舌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韓國에서 발견되는 銅鐸과 小銅鐸은 대부분 舌을 가지고 있으며 舌을 매달았을 경우 扶餘 合松里遺蹟 出土品처럼 舌이 鐸身 밖으로 나온다(그림 38). 一連의 그림들이 대부분 側面象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그림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魏志〉 東夷傳 韓傳의 “立大木縣[懸]鈴鼓, 事鬼神”의 記事나 〈後漢書〉 東夷傳 韓傳의 “建大木以懸鈴鼓, 事鬼神”의 記事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믿어진다. 즉 別邑의 神壇이 설치된 곳 즉 蘇塗의 모습이나 祭儀 때의 銅鐸을 매단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古代 傳統이 오래 持續된 日本에서는 江戸時代の 狩野晴川院이 그린 〈戸山莊地取〉에는 큰 나무 앞의 나무틀에 매달아놓은 銅鐸의 그림이 남아있어 이러한 자취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sup>32)</sup>. 역시 이 그림은 나무에 매달은 銅鐸의 그림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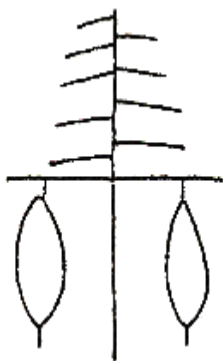


그림 37. 稻吉 角田 나무와 銅鐸(?)



그림 38. 扶餘 合松里 銅鐸

⑥ 여섯 번째 그림은 破損되어 없는 부분이 있지만 뿔이 없는 사슴(牝鹿)을 表現한 것이다(그림 39). 사슴은 銅鐸이나 土器의 그림에 가장 많이 登場하는 動物로 日本 弥生時代 繪畫土器의 4割가까이를 점하고 있는 主題이다<sup>33)</sup>. 사슴은 고기, 가죽, 피, 뿔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有用한 동물이다. 사슴을 사냥하거나 잡는 그림은 土器繪畫와 銅鐸繪畫에도 많이 登場한다<sup>34)</sup>. 祭儀에 犠牲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日本書紀』에도 ‘眞名鹿의 껍질

32) 井上洋一, 2001, 「銅鐸研究における多角的視点とその成果」, 『銅鐸から描く弥生社會』, 一宮市博物館

33) 常松幹雄, 1998, 「1. カメ棺に描かれた弥生人の世界」, 『弥生人のタイムプセル』, 福岡市博物館,

34) 神戸市櫻ヶ丘 5號銅鐸, 傳 香川縣出土 銅鐸, 滋賀縣 新庄出土 銅鐸, 奈良 清水風出土 土器 및 奈良縣 荒蒔古墳 및 京都府 水内古墳의 埴輪 등

을 벗겨 天羽鞆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 사슴 사냥에 관한 기록도 있다. 日本에서는 牝鹿의 體內에 地靈이 머무른다고 보기도 하고, 사슴은 뿔이 毎年 다시 交替되기 때문에 벼의 生長과 類似해 農耕社會에서 重要な 動物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豊後國風土記』나 『播磨國風土記』등에는 稻作, 豊作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sup>35)</sup>. 中國 河南省 信陽市 小劉庄 1號楚墓에서는 木槨腰坑에 뿔이 있는 若鹿이 벼에 싸여져 埋葬되어 있었다고 하므로<sup>36)</sup>, 사슴이 稻作과 관련이 깊은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하겠다. 牝鹿은 韓國의 牙山 南城里遺蹟 出土 劍把形銅器에서 보이고 있고<그림 40>, 牡鹿은 傳 慶州 出土 肩胛形銅器와 같은 靑銅器에서 보인다<그림 41><sup>37)</sup>. 儀禮와 깊은 關聯을 가진 동물로 특히 샤머니즘과는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動物이다. 日本의 奈良 唐古・鍵遺蹟 出土 土器繪畫 內容에서도 샤먼으로 보이는 女性과 男性 그리고 牡鹿, 牝鹿, 高床建物 등이 그려져 있고, 兵庫縣 養久山 前地遺跡 出土 土器繪畫 內容에서도 샤먼과 사슴 그리고 高床建物이 보이고 있어 샤머니즘 및 稻作관련 農耕祭儀와는 뗄 수 없는 關係에 있다고 하겠다. 農耕社會의 각종 祭禮와 관련된 샤머니즘을 象徵的으로 表現한 것일 可能性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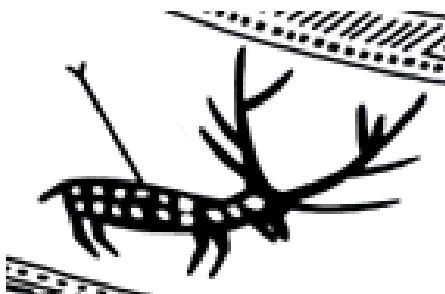


그림 39. 稻吉 角田 사슴 그림 40. 牙山 南城里 사슴 그림 41. 傳 慶州 肩甲形銅器 사슴

이상의 段落 別 그림을 일련의 줄거리로 엮어보면 아래와 같이 要約이 가능하다.

① 太陽을 崇拜하는 또는 太陽神을 믿는 農耕部族(精文鏡으로 太陽神과 連結된 部族)이 韓半島에서 해가 뜨는 東쪽을 향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移住해 왔다. ② 마을을 形成하고 祖靈을 위한 宗廟와 같은 성격의 祭殿과 土地와 穀靈을 위한 社稷과 같은 建物을 세웠다. ③ 農事 특히 稻作과 관련된 春耕과 秋收 때 豊饒와 繁榮을 위해 神木에 銅鐸을 매달고

35) 寺澤 薫, 2001, 「マツリの變貌 -銅鐸特殊器台へ-」, 『銅鐸から描く弥生社會』, 一宮市博物館  
『豊後國風土記』速見郡條, 『播磨國風土記』讚容郡條, 加毛郡條의 ‘밭을 망친 사슴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주니 子子孫孫 豊作이 계속되었다.’, ‘사슴을 잡아 배를 갈라 범씨를 모종하니 하룻밤에 싹이 났다.’든가 ‘太水神이 사슴의 피로 밭을 지으니 물이 필요 없다.’ 등의 기사

36) 註 34)上掲書 再引用

37) 國立中央博物館・國立光州博物館, 1992, 『韓國의 靑銅器文化』, 汎友社

祭儀를 지냈다. ❹ 이러한 祭儀는 祭司長(샤먼)이 主宰하였고 사슴을 犧牲으로 하였다.

다음은 稻吉角田遺蹟 周邊의 地名과 關聯 遺蹟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 〈孝靈山과 벼(쌀) 관련 地名〉

前述한 바와 같이 이 稻吉遺蹟은 孝靈山 아래쪽의 低平한 平野地帶에 위치하고 있다. 孝靈山을 背後로 하고 있는 것이다. 孝靈山の 이름은 이름 그대로 靈을 섬기는(孝) 산이다. 이 산은 高麗山, 韓山, 瓦山이라는 別稱도 가지고 있다. 高麗山이라는 이름은 高麗사람들이 이 산의 뒤에 있는 大山과 높이를 비교해보기(키 재기)위해 가지고 왔다는 傳說을 가진 산이다. 大山은 「出雲國風土記」에 「大神岳」, 「火神岳」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神山이다. 이 大山 앞의 孝靈山 역시「神秘的 山」이라고 불리며, 더욱이 이 山の 北西쪽 海岸 쪽에 所在하는 마을(米子市 西伯郡 大山町)의 舊名이「高麗村」이기 때문에 韓半島와는 어떠한 關聯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韓山과 瓦山の 日本式 發音은 ‘가라야마(からやま)’이다. ‘가라’라는 呼稱도 韓國과 관련되어 있는 用語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가라의 뜻을 「갓나라(邊國)」로 보고 海上活動을 活潑히 하였던 弁辰지역을 指稱하였다는 見解가 잘 알려져 있고<sup>38)</sup>, 日本에서 韓 이외에도 唐, 空 등 ‘가라’의 名稱이 붙은 內容은 거의 韓半島나 「先進 文物이 들어온 곳」과 關聯이 있다는 사실로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는 우리가 「中國文物이 들어온 곳」이나 中國과 관련된 곳의 名稱을 唐津(中國으로 가는 나루), 唐土城(智塔里土城), 唐樂(朝鮮時代 中國音樂), 唐磬(中國에서 들어온 編磬) 등 時代와 관계없이「唐」을 붙여 中國을 呼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地名으로 보는 한 이 遺蹟一帶가 韓半島 특히 韓半島 南部의 弁辰地域과 關聯이 깊다고 믿어진다.

한편 角田遺蹟의 周邊地域에는 벼나 쌀과 관련된 地名이 많은 것도 特徵이다. 稻吉이라는 명칭 이외에도 稻光, 米子市 등의 地名이 보이고 있고, 出雲神話의 三穗津姬命 神(高天原에서 稻穗를 가지고 내려)의 이름에서 緣由한다고 전해지는 美保(三穗)의 地名, 그리고 地名은 아니지만 稻背脛이라고 하는 人名 등 모두 벼나 쌀과 關聯이 있는 名稱이다. 이 지역이 예로부터 稻作農耕과 關聯이 깊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겠으며, 農耕文化의 核心인 松菊里型住居 중심의 聚落遺蹟인 妻木晩田遺蹟과도 無關하지 않을 것이다.

38) 李丙燾, 1983, 『韓國 古代史研究』, 博英社

## 〈妻木晩田遺跡과 松菊里型住居〉

이 그림이 그려진 土器는 農耕地 整理作業 時 孝靈山 남쪽자락의 低平한 地域에서 出土된 것이다. 弥生時代 中期에 속하는 土器이다. 이 地域에서는 弥生時代 前期에서 中期에 걸쳐 平地를 中心으로 마을이 形成되어 있다가, 弥生時代 中期 後葉에는 점차 丘陵으로 옮겨진다고 한다. 稻吉 角田遺蹟에서 약 2.7km 떨어진 孝靈山 서쪽자락의 丘陵地帶에는 大形 聚落遺跡인 妻木晩田遺蹟이 있는데<sup>39)</sup>, 이 遺跡은 中期 後葉부터 松尾頭地區에 竪穴住居가 만들어지기 始作하며 擴大된다고 한다. 大規模이고 長期間에 걸쳐 持續적으로 造營된 것이 特徵이다. 시기적으로 보아 角田遺蹟과 順次的으로 連結될 可能性이 많다. 妻木晩田遺蹟은 單位集團의 集住로는 거의 類例가 없을 정도의 規模이고 鐵製品 生産 등 發掘調査 狀況을 考慮할 때, 農業共同體 首長層 以上の 確立된 首長(王?)의 存在 可能性이 있는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sup>40)</sup>. 이 時期에 만들어진 竪穴住居의 상당수는 作業孔이 한가운데에 나있고 柱穴이 주위에 配置된 소위 ‘松菊里型住居’ 또는 變形의 ‘松菊里型住居’로 소위 ‘梨琴洞式住居’로 부르는 것 등이 많다<sup>41)</sup>. 鳥取縣 일대에서는 下山南通遺蹟(弥生中期-後期)<sup>42)</sup>〈그림 42〉을 비롯해 下古志遺蹟 등에서 松菊里型住居址가 多數 發見된 바가 있다. 妻木晩田遺蹟에서는 首長の 住居로 推定되는 建物址도 確認되었는데, 특히 首長居館으로 推定된 住居址를 보면 中央의 구덩이 주위에 4개의 柱穴이 배치되어 있고, 중앙구덩이에 排水溝가 連結된 型式이다 〈그림 43〉. 중앙구덩이에 排水溝가 連結된 것은 韓半島 南部地域의 保寧 平羅里遺蹟, 濟州 下貴一里 遺蹟 등의 後期の 松菊里型住居〈그림 44〉에서 많이 보이는 型式이다. 妻木晩田遺蹟이 韓半島의 松菊里型文化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慶南地域의 ‘梨琴洞式住居’〈그림 45, 46〉와 湖南과 濟州 지역의 중앙구덩이에 排水溝가 連結된 型式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9) a. 大山町教育委員會, 2000, 『妻木晩田遺跡發掘調査報告』, 大山町埋藏文化財調査報告書 第17集

b. 鳥取縣教育委員會, 2003, 『史跡妻木晩田遺跡第4次發掘調査報告書』

40) 藤田憲司, 2005, 「妻木晩田集落論」, 『考古論集』, 川越哲志先生退官記念論文集

41) 이종철 2016, 『청동기시대 송국리형문화의 전개와 취락 체계』, 진인진

梨琴洞式住居는 泗川, 馬山, 昌原, 巨濟 등 慶南地域에 集中되어 있는 것이 特徵이며, 日本 玄界灘 沿岸地域에서도 많이 發見되고 있다.

42) (財)鳥取縣教育文化財團, 1986, 『下山南通遺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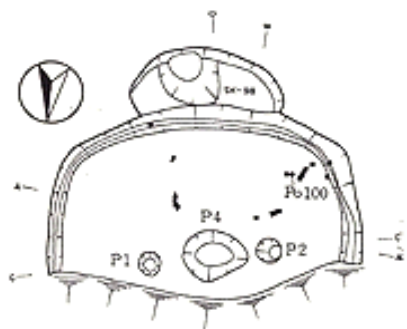


그림 42. 日本 下山南通 S-1 06  
松菊里型住居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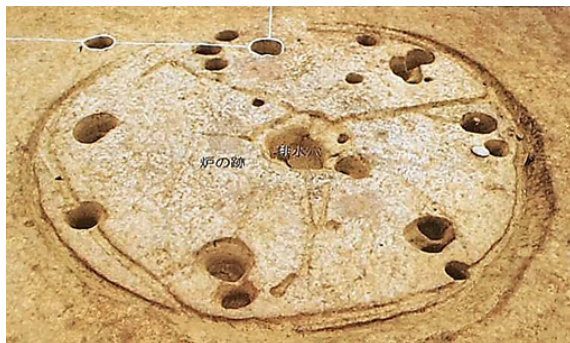


그림 43. 日本 妻木晩田 제 102호 住居址



그림 44. 濟州 下貴一里 遺蹟 排水口 住居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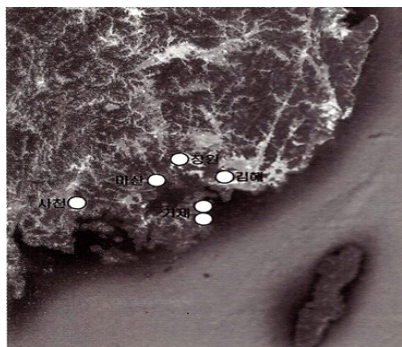


그림 45. 梨琴洞式住居址 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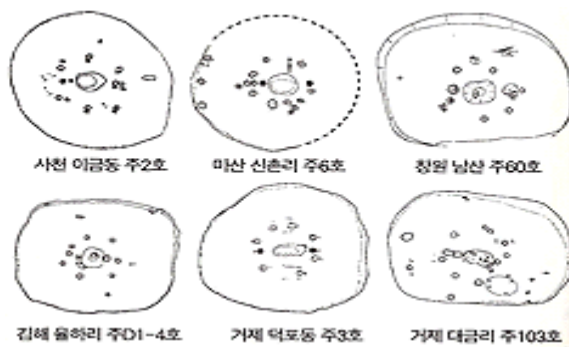


그림 46. 梨琴洞式住居址

### 〈韓半島의 多重環濠 聚落遺蹟과 田和山遺蹟〉

이와 더불어 또 하나 注目되는 것은 이 稻吉 角田遺蹟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島根 縣 松江市의 弥生時代 前期-中期 遺跡인 田和山遺蹟의 存在이다<sup>43)</sup>. 이 遺蹟에서는 三重環

43) 松江市教育委員会, 2001, 『田和山遺跡』



濠로 둘러싸여 住居址들과 分離된 頂部에서 高床建物과 望樓로 추정되는 建物の 柱穴들이 發見되었는데<그림 47>, 그 性格에 대해서는 첫째 軍事的・防禦的 役割을 한 場所, 둘째 祭祀 役割의 場所, 셋째 軍事와 祭祀 양쪽 役割을 모두 하였던 場所 및 其他 등으로 分類한 小田富士雄의 見解가 있다<sup>44)</sup>. 이밖에도 兵庫縣 朝來市の 弥生時代 後期前半의 大盛山遺跡에서도 多重環濠에 둘러싸인 聚落이 발견되었다<sup>45)</sup>. 神祠와 같은 宗教 또는 祭祀 關聯施設 같은 神聖하고 特殊한 機能을 가진 것이 存在하였을 可能性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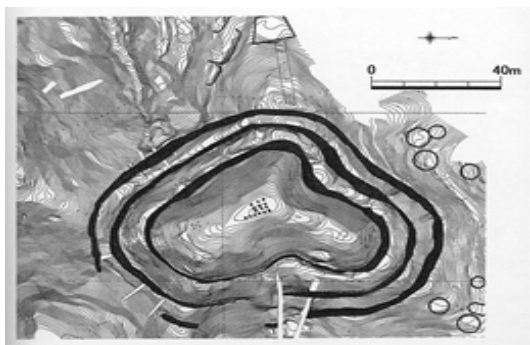


그림 47. 田和山遺蹟 多重環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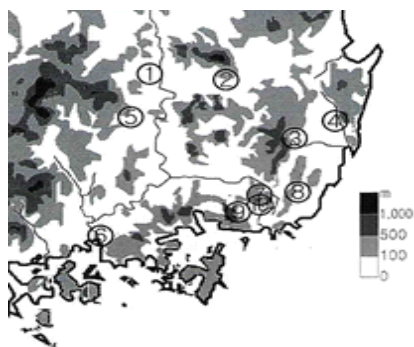


그림 48. 嶺南地域 鐵器時代, 原三國時代  
多重環濠 遺構 分布圖

이러한 聚落과 區分해서 環濠와 山頂部の 特定空間 内に 施設을 두는 것은 韓國 青銅器時代 前期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内容이다. 前期 遺跡인 京畿道 華城 雙松里 聚落遺跡을 비롯해 安城, 龍仁, 水原 등 京畿地域과 慶南 陝川 등의 韓國式銅劍文化期 遺蹟에 이르기까지 많은 地域에서 이러한 施設들이 發見되고 있다<sup>46)</sup>. 住居址나 聚落과는 別途로 分離된 高地에 造成된 溝狀遺構, 堅穴遺構 등이 있는데, 聚落과 分離되어 있는 頂上部 쪽 環濠(環溝)에 둘러진 空間은 立地の 特殊性和 聚落과 分離된 점 등으로 보아 天神에 祭禮를 올리는 곳이거나 特殊 儀禮를 行하는 場所 또는 集團의 結束을 強化하는 場所로 推定되고 있다. 이러한 多重環濠가 있는 遺蹟은 鐵器時代와 原三國時代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近者에는 日本과 가까운 地域인 嶺南의 慶山, 蔚山, 陝川, 泗川, 釜山 등지의 地域에서도 發見 例가 많이 늘고 있다<sup>47)</sup>. 日本 鳥取縣과 가까운 田和山遺蹟에서 이와 類似한 内容을 가진 環濠와

44) 小田富士雄, 2016, 「西日本先史時代の祭祀儀禮—近年の弥生時代調査事例から—」, 『廣島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 考古學研究室50周年記念論文集・文集』

45) 兵庫縣朝來市和田山町教育委員會, 1995, 『大盛山遺跡』

46) 이형원 2017, 「화성시의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유적과 문화」, 『화성시 고고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 화성시청

47) a 慶南文化財研究院, 2006, 『蔚山 蓮岩洞 環濠遺蹟』

함께 山頂에서 獨立된 高床建物이 發見되어 그 源流를 韓半島에서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鐵器時代 以後의 多重環濠는 慶南地域에서 많이 보이고 있어 이 地域과의 關係가 注目된다<그림 48>.

### 〈其他 遺蹟과의 關聯性〉

角田遺蹟이나 妻木晩田遺蹟에서 멀지 않은 鳥取縣의 靑谷上寺地遺蹟에서는 弥生時代 前期 後葉~中期 前葉에 해당하는 鑄造鐵斧 片들이 出土되고 있으나, 基本的으로 많은 鐵製工具는 中期 中葉 以後의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鐵器들은 北九州地域을 經由해 들어갔다고 보기도 하지만, 韓半島에서 直接 들어간 交易의 産物로 보기도 한다<sup>48)</sup>. 骨角器에 있어서도 銚頭, 釣針, 卜骨 등의 型式과 分布를 통한 比較를 통해 韓半島 靑島 유적과 같은 南岸部の 種類와 類似하다는 점이 指摘되었다. 특히 靑島 유적과의 卜骨集積 遺構 共通性으로 보아 交易를 통해 精神文化까지 가져왔을 것으로 보는 見解도 있다<sup>49)</sup>. 또한 靑谷上寺地遺蹟에서 出土된 魚骨을 보면 물고기, 참치, 고래, 돌고래 등 外洋魚도 包含되어 있고, 弥生時代 後期에 이러한 魚種의 出土 例가 增加되고 있어 漁法과 함께 航海技術의 發達이 關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 척의 배가 그려져 있는 木板도 出土되었고, 50점 정도의 배 破片이 發見되어 交流를 위해 船團까지 꾸렸던 것으로 推定하기도 한다<sup>50)</sup>.

弥生中期에는 小量이지만 松菊里型土器, 圓形粘土帶土器와 三角形粘土帶土器가 鳥取縣이나 島根縣과 같은 山陰지역에서도 發見되고 있으며, 靑谷上寺地遺蹟 出土된 弥生時代 後期 人骨 大多數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渡來系(韓半島系?)로 把握된 것 또한 韓半島에서의 移住를 뒷받침하는 根據가 될 수 있겠다<sup>51)</sup>.

角田遺蹟 土器繪畫처럼 一連의 이야기를 담은 構成은 日本에서도 奈良 唐古·鍵遺蹟과 奈良 清水風遺蹟, 그리고 兵庫縣 養久山·前地遺蹟 出土 土器繪畫에서만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드물다. 이들 土器繪畫의 共通되는 점은 畫題가 高床家屋, 사슴 그리고 샤먼 또는 샤머니즘 관련 內容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角田 土器繪畫에는 샤먼과 직접

b 김유정, 2018, 「영남지역 삼한시대 환호의 성격검토」, 『環濠集落』平成30年度 東アジア國際シンポジウム, 長崎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

48) 河合章行, 2018, 「日本海がつなぐ弥生時代の交流」, 『第5回 古代史シンポジウム IN しものせき』, 古代史シンポジウム實行委員會

49) 大野哲二, 2007, 「靑谷上寺地遺蹟にみる海」, 『海と弥生人』, 第8回 弥生文化シンポジウム, 鳥取県教育委員會

50) 주 45) 前掲書

51) 鳥取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 2006, 「第4章 3節 出土人骨について」, 『靑谷上寺地遺蹟 8-第2次~第7次發掘 調査報告書-』, 鳥取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 發掘調査報告 10

연관되는 내용은 없지만 太陽과 사슴그림으로 보아 충분히 샤머니즘을 상징할 수 있다<sup>52)</sup>. 다만 一連의 스토리가 連結되어 展開되는 점이 다른 것들과는 다른 獨特한 점이다<sup>53)</sup>.

#### IV.

이러한 여러 情況들을 綜合해 볼 때 稻吉유적에서 出土된 大形 土器의 그림은 韓半島에서 日本列島로 移住한 靑銅器時代人(韓國式銅劍文化期)의 移住 目的과 힘든 旅程 그리고 聚落을 形成하여 定着하기까지의 過程을 이야기하는 大敘事詩라고 할 수 있다. 繪畫土器가 만들어진 때는 토기형식으로 보아 弥生時代 中期後葉이라고 하지만 그림의 내용은 先祖들이 韓半島에서 農耕技術을 가지고 日本으로 移住하던 時期로 보아야 하겠다. 靑銅器時代 以來 韓半島에서 日本列島로의 移住는 間斷없이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鐵器流入 以後의 韓國式銅劍文化期 衰退期에는 더욱 잦았을 것으로 믿어진다. 韓半島에서 移住民들이 배를 타고 太陽이 뜨는 東으로 향하다가, 大韓海峽을 통과하는 對馬暖流(Tsushima Warm Current)와 같은 海流를 타고 日本 沿岸을 따라 北東쪽으로 향하여 美保灣으로 들어와, 孝靈山 밑의 淀江(Yodoe)平野 일대에서 定着하며, 弥生人들과 함께 稻作農耕을 營爲하였을 可能性이 높다. 이들은 松菊里型住居를 基本 住居型으로 하여 弥生時代 後期까지 國邑을 형성하며 이어나갔다고 생각한다.

文化傳播에 立脚한 日本으로의 移住 내지 進出에 대해서는 批判도 있을 수 있으나, 精文鏡 등을 통해 太陽을 崇拜하는 공통점, 샤머니즘적 요소, 單純한 松菊里型住居 構造 뿐만 아니라, 石器나 鐵器 등을 製作하던 中央部 구덩이의 作業場으로서의 機能, 이와 연결된 排水口 그리고 稻作農耕과 木器, 石器, 각종 關聯 遺物들 그리고 關聯 地名 등 文化要素 複合의 內容을 볼 때 日本으로의 住民의 移住를 充分히 想定할 수 있는 問題이다. 왜 太陽이 떠오르는 곳을 찾아 東으로 移住하여, 이러한 傳播와 受容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質問을 던지고 答을 구해야 할 時點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韓國式銅劍文化 衰退期에 새로운 鐵器文化에 밀려나게 된 既存의 靑銅器文化 住民들이 새로운 開拓地를 찾아 太陽이 떠오르는 東쪽 日本으로 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이며, 또 하나는 多鈕鏡의 傳世品과 『古事記』의 ‘吾兒視此寶鏡當猶視吾。可與同床共殿以爲齋鏡’(여기에 있는 거울은 내가 魂이라고

52) 『三國遺事』延鳥郎 細鳥女條에도 무당으로 믿어지는 日官이라는 表現이 있다.

53) 禰宜田 佳男, 2006, 前掲書



생각하는 것이니, 나를 神으로서 崇拜해 祭儀를 지낸 것과 마찬가지로 잘 받들어 祭儀를 지내도록 하라.) 記錄이 보여주는 意味처럼 權力의 移讓 또는 周邊으로의 領土 擴張을 이루기 위해 寶器的인 性格을 지닌 거울을 親族에게 내려주어 새로운 땅으로 進出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向後 宿題로 남겨두자.

이상 日本 鳥取縣의 稻吉 角田遺蹟 出土 繪畫土器에 대한 筆者의 愚見을 披瀝하였다. 그림의 內容은 韓國 靑銅器時代의 太陽을 崇拜하는 農耕部族의 日本 移住를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松菊里型住居의 擴散과 關聯해 注目을 해야 한다는 점을 指摘하였다.

## 참고문헌

- 韓炳三, 1971, 「先史時代 農耕文青銅器에 대하여」, 『考古美術』112,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李丙燾, 1983, 『韓國 古代史研究』, 博英社
- 倉野憲司校注, 1985, 『古事記』, 岩波文庫
- 盖山林, 1986, 『陰山岩畫』, 文物出版社
- 近藤喬一, 1986, 「東アジアと青銅祭器-農耕儀禮の祭器としての武器と鐸-」, 『銅劍・銅鐸・銅鉞  
と出雲王國の時代』, 日本放送出版協會
- (財)鳥取縣教育文化財團, 1986, 『下山南通遺跡』
- 春成秀爾, 1987, 「銅鐸のまつり」,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12集
- 田溶新譯, 1990, 『完譯 日本書紀』, 一志社
- 大山町教育委員會, 2000, 『妻木晩田遺跡發掘調查報告』, 大山町埋藏文化財調查報告書 第17集
- 一宮市博物館, 2001, 『銅鐸から描く 弥生社會』
- 鳥取縣教育委員會, 2003, 『史跡妻木晩田遺跡第4次發掘調查報告書』
- 藤田憲司, 2005, 「妻木晩田集落論」, 『考古論集』, 川越哲志先生退官記念論文集
- 禰宜田佳男, 2006, 「繪畫による傳達」, 『文字と古代日本』五, 吉川弘文館
- 慶南文化財研究院, 2006, 『蔚山 蓮岩洞 環濠遺蹟』
- 阿南 亨, 2007, 「古墳時代の船と航海」, 『大王の棺を運ぶ實驗航海』研究編, 石棺文化研究會
- 設楽博己, 2009, 「独立棟持柱建物と祖靈祭祀」,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149集
- 島根縣立古代出雲歷史博物館, 2010, 『島根縣立古代出雲歷史博物館 展示ガイド』

【Abstract】

Study on the Painted Pottery from the Inayoshi Sumida (稲吉角田) site in Japan  
- focusing on the migration of the Sun Tribe communities of the Korean  
Peninsula to the Japanese Archipelago -

Lee Geonmu\*

A large painted ceramic vessel with multiple motifs rendered around the upper part of the body was discovered at Inayoshi Sumida (稲吉角田), a Middle Yayoi period site located in Tottori Prefecture, Japan. Painted images are not frequently found on Yayoi pottery, and the composition of multiple images on a single vessel is a rare occurrence. Therefore, research has continuously been carried out on the meaning of these images and the function of the pottery featuring such images.

In this article, the author focuses on the fact that a large-scale central settlement featuring Songgukri type dwellings (distinctive to the Korean Bronze Age) was located near the Inayoshi Sumida site, where the painted pottery had been unearthed.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images features on this painted vessel from Inayoshi Sumida, it is proposed that they represent the process of the migration and settling down of Bronze Age communities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the Japanese Archipelago.

A likely possibility is that the Bronze Age communities of the Korean Peninsula migrated to the Japanese Archipelago on boats during the Korean Bronze Dagger phase, and subsequently undertook wet-rice farming with Yayoi communities. These groups lived in Songgukri type dwellings and later developed into the ‘state towns (國邑)’ of the Late Yayoi period. Furthermore, it may be suggested that the reason for this migration from the Korean Peninsula was the spread of Iron Age culture, which resulted in the relocation of Bronze Age communities, the transfer of power, and territorial expansion.

Key words : Yayoi period, Inayoshi, Painted pottery, painted images

---

\* Former Director-General of National Museum of Korea

